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7 주일]

2009 년 10 월 3 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 해설: 김리미 멜라니아	봉헌금: \$ 205	
다음주 미사 해설: 신정혜 세레나	2 차봉헌금: \$ 204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교무금: \$ 820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합계: \$ 1229	
친교실 정리: 우리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람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격주 목요일(10 월 15 일) 저녁 8 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8 시 30 분, 성당 사무실, 정원심 크리스티나

<복음계속>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 <오늘의 묵상>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의 몸이 ‘한 사람의 몸’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두 영혼이 ‘하나의 영혼’이 되고, 두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 묶인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운명이 그대의 운명과 같아졌으니, 생각할수록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모든 운명은 주님께서 좌우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계산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은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앞날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언제라도 정석입니다. 당연히 ‘하나가 된’ 운명을 바꾸려는 생각보다 좋게 하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인연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어렵게 만나고는 쉽게 떠나려 합니다. 고통은 피하고 기쁨만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은 본래부터 고통스러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번민과 괴로움은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의 운명으로 바뀌었으니 고뇌는 당연한 일입니다. 인연이 주는 아픔이 반복되더라도, 주님께서 맺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한쪽이 흔들리더라도, ‘나는’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운명을 쥐고 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잡아 주십니다.

<제 1 독서> 창세기 2,18-24 <둘이 한 몸이 된다.>

<제 2 독서> 히브리서 2,9-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는 네 손으로 벌어들여라,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 마르코 10,2-16

복음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연짙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 연명 계속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네.

[오늘의 성가] 시작: 456 봉헌: 437 성체: 402 파견: 400

† <생명의 말씀>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 아무리 못 생긴 아가씨도 /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오래전 유행했던 노래 가사입니다. 정말 사랑을 하면 예뻐질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학문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을 하면 대뇌의 특정 부위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어 혈류량이 늘어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윤기와 탄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풍처럼 열정적인 사랑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한 대학의 인간행동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도 약 900일이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뜨거운 사랑의 열정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셈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로운 감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계를 가진 인간 본성처럼 인간의 사랑 또한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인한 부부가 갈라선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과 부모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합니다(신명 24, 1-4).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일 뿐이고, 성경에 명시적 율법 조항으로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이혼장을 써주라”는 조건은 본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던 당시 아내를 함부로 내쫓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본래의 뜻에 따르려면 아예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율법을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오늘날 불행한 부부관계의 가장 큰 원인은 굳어진 마음에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두 인격체의 결합이며 두 생명의 결합입니다. 결혼은 흔히 사랑의 완성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하려면 당연히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혼인성사 때의 기도처럼 결혼을 지탱하는 힘과 지혜는 결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평생을 변함없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라면 가능해집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예뻐집니다. 자신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예뻐집니다.”

† <알려드립니다>

❖ 2009-2010년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자 교리는 김 아셀라 수녀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변에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예비자분들이나 가톨릭 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리 수업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사제관에서 열리며, 다음 교리 수업은 10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성당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관심있는 학부 학생 교수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에서는 따로 첫 영성체 교리반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영성체 대상 자녀를 둔 교수분들은 사목회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수분들께서는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 주소록을 업데이트 중입니다. 성당 홈페이지(<http://club.catholic.or.kr/thekccm>) 회원 주소록란에 올라와있는 주소록을 확인하시고, 혹 주소록에 빠져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교수분들은 다음주일 (10/10)까지 정대준 요셉 형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록이 확정되는대로 교수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소록 파일을 열어보실려면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185-에 올라와 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따로 주소록 파일이 필요하신 교수분들은 사목회장에게 알려주시면 주소록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께서 교수들을 위해 전기 칫솔 (Oral-B Triumph model) 두 세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전기 칫솔 세트는 오늘 미사후 추첨을 통해 뽑으신 교수분에게 경품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을 기증해주신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보름달처럼 예쁘고 알찬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빕니다 **

